

34장. 세겔과 디나 사건

벤엘로 올라가지 않고 세겔에 거하던 야곱은 딸 디나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 일 후에 그는 벤엘로 올라간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데에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모세는 세겔 사람이 히위 족속이라고 기록한다.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하나와 야곱의 가족이 대면하는 일을 기록한다. 우리는 이 사건도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읽게 된다. 히위 족속의 폭력과 거짓말을 보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당위를 생각하고, 동시에 거룩한 것을 오용하는 야곱 가족의 약점도 본다.

1. 디나의 외출과 세겔의 그릇된 사랑 (34:1-4)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려고 나간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빠들 사이에서만 있던 디나는 세겔의 여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들은 외적으로 아름답게 치장했을 것이다. 디나의 관심은 그러한 가나안 여인들에게로 향하였다.

디나가 세겔에 갔을 때 세겔 성의 추장인 세겔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억지로 끌어들이려 강간하였다. 자신의 힘으로 디나의 순결을 빼앗은 것이다. 그런데 세겔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그 마음이 깊**
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戀戀)”하였다. 이 말은 “그의 영혼은 디나에게 연합되었다”고도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마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2:24) 그의 영혼은 디나를 깊이 사랑하였다.

세겔의 디나에 대한 사랑은 거짓된 것이 아님을 그다음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디나의 마음에 정다이 이야기하였고(3절), 자기의 아버지 하물도 설득하여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4절). 하물이 아들을 위해 야곱을 찾아갔을 때에도 첫 마디가 **“내 아들 세겔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하는 말이었다(8절). 또한 하물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세겔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고 실행하였다(19절).

2. 야곱의 반응과 평가 (34:5-7)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듣고도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 성경 기자는 이 이야기를 쓴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는 평가를 덧붙인다(7절). 암논이 완력으로 다말과 동침하려고 했을 때 다말이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삼하 13:12) 하고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부끄러운 일’이나 ‘괴악한 일’은 모두 같은 단어다.

3. 하물과 세겔의 제안 (34:8-12)

아들 세겔의 청을 듣고 야곱을 만나러 온 하물은 자기의 아들 세겔이 디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였다(34:7). 세겔이 마음(영혼)으로 디나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감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일 것이다.

둘째는 서로 통혼하자고 제안하였다. 지금 하물과 협상하는 야곱의 아들들도 아마 혼인할 나이가 되었을 텐데, 그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두 부족이 통혼한다는 것은 합하여서 한 민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물과 세겔은 자기 고을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22절)고 이야기하였다.

셋째는 세겔의 땅에 머물고 매매를 하고 또한 기업을 사라고 제안하였다. 전에도 야곱이 땅을 샀는데(33:19)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 또 다른 땅을 사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을 하였다.

아버지 하물이 세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여기에 세겔이 끼어들어서 경제적인 것을 채워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아버지 하물은 거기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세겔은 빙패와 예물을 주어서 그 일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그로서는 상당한 호의를 베풀려고 하였다.

4. 야곱의 아들들의 대답 (34:13-17)

하물과 세겜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대답하였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이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던 것 같다. 이들은 모두 레아의 아들로써 디나의 오빠들이었다(34:25).

세겜은 혼인을 제안할 때에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였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응수하였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주면 자신들에게 수치가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과 혼인의 관계에 들어 가려면 세겜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끝에는 위협을 덧붙였다.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디나를 데려오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부터 세겜에게 복수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할례를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모세도 이들이 ‘속여 대답하였다’고 평가하였다(13절).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27:35), 부전자전(父傳子傳)으로 그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썼다. 이러한 것이 속이는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모세는 이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을 처음부터 밝히 알려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룩한 할례 제도 까지도 이웃을 속이는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5.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 사람들 (34:18-31)

1) 하물과 세겜의 세겜 사람들 설득 (34:18-24)

야곱의 아들들의 말이 좋게 들렸기 때문에 세겜은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그 일이란 바로 할례를 가리킨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성문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는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들과 “친목”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을 시작하였다.

하물과 세겜의 말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자신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제안을 설명한 것이다(21절). 그는 야곱에게는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10절) 하고 제안하였지만,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기업을 얻게 하자는 말은 뺐다. 23절에서는 ‘매매한다’는 말도 빼고 ‘머물게 하자’는 말로만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하물과 세겜의 말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 사실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이다(22절).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달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령한 약속을 거짓 말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셋째는 야곱의 아들들과 한 민족이 되었을 때 얻을 유익에 대한 그의 해석이다(23절). 그들과 한 민족이 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이것은 그들을 산 채로 삼키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잠 1:12, 13).

하물과 세겜의 말을 보면 기묘한 속임수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이야기도,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일이 공적인 성격의 것이고 사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비치도록 포장하였다. 이러한 일은, 칼빈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악이다.

2) 세겜 성을 치고 노략함 (34:25-29)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진통제도 없고 소독약도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할례를 받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할례를 받으면 삼 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웠던 시므온과 레위는 제3일에 세겜 성을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한 하물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구출하여 집으로 데려왔다. 하물과 세겜은 야곱의 가족이 자기들과 친목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였는데, 우호적이라고 생각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다.

또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성에 가서 노략질하였고 모든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왔다. 살인 뿐 아니라 약탈이 그 뒤를 이었다.

3)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 (34:30-31)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냄새가 나게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두 아들을 책망하였다. 이것은 디나의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야곱이 처음으로 하는 말인데, 이 말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가족의 안전 문제를 놓고서 두 아들을 책망하고 있다. 두 아들이 속였다는 사실을 책망 하지도 않고, 또한 다른 아들들이 약탈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곱의 말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하고 반문하였다. 세겔이 돈과 선물을 제시하면서 혼인을 제안한 것을 두고서(34:12) 그의 오라비들은 세겔이 디나를 창녀 처럼 대하였다고 말하고, 그들이 세겔 사람을 노략함으로써 처하게 된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야곱은 없다. 이것이 34장에 기록된 마지막 말이다. 이 사건에 대한 답은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35장에서 야곱에게 ‘벧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디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이다.

묵상과 실천:

디나 사건을 보는 눈

1. 세겔과 디나에 대한 관점

1) 세겔에 대한 관점

세겔이 디나를 참으로 사랑하였지만 그것이 혼인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은 사람의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특히 이방 사람과 통혼하는 것은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세겔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여자를 취하여서 폭력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노아 시대와 비슷하다(6:2). 하나님께서는 폭력과 인간적인 사랑이 가득한 시대를 그냥 두시지 않고 홍수로 심판하셨다.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무엇을 이끌고 나아가고 또한 사랑이 있어서 마음에 정답게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사랑을 다른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는 세겔과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심판할 대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사 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15:16)고 말씀하셨다. 세겔과 같은 죄악이 더 번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세겔의 행위에서 로맨스가 아니라 임박한 심판을 본다.

폭력과 그릇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좋은 예가 소돔과 고모라이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집행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에 대한 심판의 뜻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를 택한 목적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18:19).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는 곳에 사는 야곱의 집안으로서 는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러한 분별력이 보이지 않는다. 때를 맞지만 맞는 때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비참

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서 뱀엘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당시의 교회는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35:1).

2) 디나에 대한 관점

성경 기자는 세겔과 디나의 이야기를 쓴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는 평가를 덧붙인다(7절).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침묵하고 있는 야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문제, 특히 안목의 정욕과 욕신의 힘을 의지해서 혼인하려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합당치 않은 것임을 밝힌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서”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독자로 놓고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참조. 신 22:21; 렘 29:23). 암논이 다말을 완력으로 동침하려고 했을 때 다말이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삼하 13:12)고 이야기하였는데, 여기에서 ‘부끄러운 일’이나 ‘괴악한 일’은 모두 같은 단어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안목의 정욕과 욕신의 정욕으로 혼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또한 디나가 세겔과 동침한 것을 “더럽혔다”고 표현하였는데(5절), 이 말도 단지 디나가 처녀성을 잃었다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섞여서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독특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있다. 디나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간의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 사명에도 연관된 것이다. 여기에서 넘어지면 민족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한 거룩한 나라의 성격을 꽃도 피우기 전에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혼인이 두 민족 사이의 문제라는 것은 하물과 세겔의 제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2. 레위와 시므온의 거짓말과 살인

우리는 레위와 시므온이 세겔에게 거짓말을 하고 세겔 사람들을 죽인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우리는 대체로 개인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이 거짓말을 하고 또한 욕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쉽다. 성경 기자도 그들이 “속여 대답하였”다고 밝혀서 그들이 잘못했음을 분명히 이야기한다(13절). 이들은 신령하기보다는 혈연 중심적이다. 레아의 아들들로서 친어머니의 딸 “우리 누이”에 대한 복수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도 거짓말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34장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서 세겔이 디나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취하여 강간한 것은 노아 시대의 심판을 상기시키며(6:2, 4)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는 않았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15:16; 18:19).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의 재산을 혼인을 빙자하여 빼앗고 그들과 ‘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의 존재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12:3).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자연히 요청된다.

또한 모세는 7절에서는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행하여져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여 주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이야기한 것도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밝혔고(13절) 또한 노략질한 이유도 세겔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27절). 가나안 사람들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나안 정복은 이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레 18:3; 20:23).

창세기의 첫 독자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경각심을 얻었을 것이며,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이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큰 위협임을 여기에서 배웠을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 합당함을

생각했을 것이다(출 34:11-16; 신 7:3; 수 23:12; 스 9:14 등).

출애굽 당시를 보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였을 때 역시 레위 자손이 그들을 먼저 공격하였고 또한 약탈하였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그 살육과 약탈을 정당하게 이야기하였지 조금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민 25장: 31:1-9).

따라서 우리는 세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제로 삼키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배운다.

문제는 이 일에 도구로 사용된 레위와 시므온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후에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져서 살 것을 예언하였다(49:5-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 앗수르나 바벨론처럼 우상 숭배하는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경우가 있다.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처럼 거짓말을 하고 혈육의 감정으로 이러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행위만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신령한 평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관점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개인주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바르게 갖게 될 것이다.

34장 익힘 문제

1. 야곱의 딸 디나는 무엇을 위해 세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까? (1절)
2.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절)
3.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4.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온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8-12절)
5. 세겜이 청혼하려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15-17절)
6. 디나의 일로 인해 세겜 성을 노략하는 일에 앞장 선 디나의 오빠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25절)
7. 항례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노략한 일로 인해 야곱 가족은 어떤 어려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30절)